

8. 권씨부인과 재혼한 퇴계(30세)



21세에 결혼 한 부인 허씨는 둘째 아들을 낳다가 세상을 떠났다.

여보, 난 어떡하라고,,,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사랑하던 부인이었다.

이렇게 일찍 데려가시다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후 수 년을 부인을 그리며 홀로 살았는데...

아빠빠!

오냐 오냐



이를 눈여겨 본 이가 있었다.

둥가둥가 우리 아기~



이웃 마을 예안에 사는 권질이었다.



권질은 사회에 휘말려 안동 예안에 유배 중이었는데,



그에게는 과년한 딸이 있었다.



아버지 권질이 귀향가고 작은 아버지는 형장에서 죽임을 당하고...



작은 어머니는 관비로 끌려가는 집안의 참극을 겪은 후로 그만 정신이 흐려지고 말았다.



딸의 장래를 걱정하던 권질은 퇴계를 지켜보고 있었다.



인륜지대사를 어찌 제 홀로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모친께 여쭙고 추후 말씀
드리겠습니다.



퇴계는 당쟁에 휘말려 멸문지화를 당한
권질의 집안을 안타까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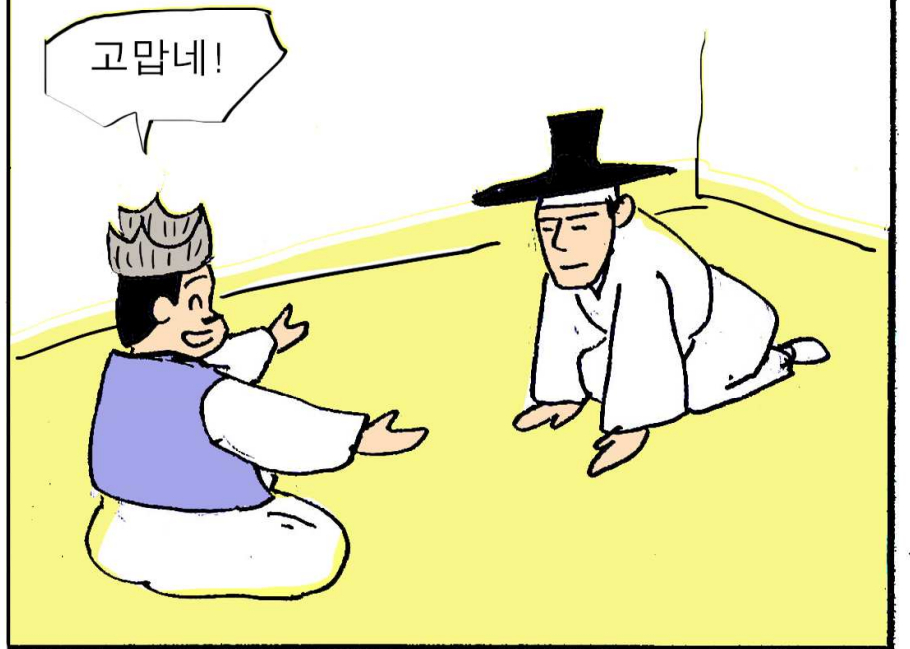
*멸문지화 : 한 집안이 모두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재앙

네가 평생 책임질 수 있다면
네 뜻대로 하렴.



네, 어머니

어머님께 여쭙 후 권질의 청을 받아들였으니..



고맙네!

퇴계는 서른 살 때에 권씨 부인과
재혼하였다.

